

자연 가까이 사랑 가까이



2018
Winter
VOL.35

한국환경공단
K-eco



9 772586 800008
ISSN 2586-8004

자연 가까이 사랑 가까이

2018 Winter VOL.35

발행처 한국환경공단 홍보실 www.kec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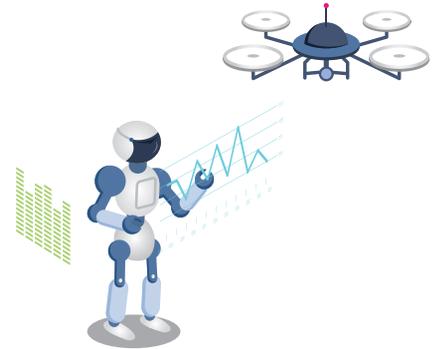
발행인 장준영

발행일 2018년 12월 10일 통권 35호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전화 032-590-3015

제작대행 & 인쇄 성우애드컴 02-890-0900



CONTENTS

CEO 메시지

04

인사말

특집; 환경이슈 로드맵

06

환경이슈 집중탐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친환경 전략

08

K-eco Project 1

미래대비 기관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노력

10

K-eco Project 2

물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전초기지가 되다

12

K-eco Project 3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환경이 그린길

14

에코로드 캠페인

충간소음 고민,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16

K-eco 포커스

깊은 밤, 자연과 함께 음악과 함께

18

에코 헤드라인

2018 ECO HEADLINE

20

그린월드 프로젝트

사람·물·자연이 함께하는 안전한 물 순환도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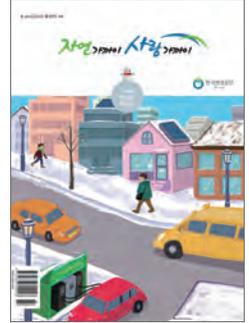
상상+환경

미세먼지, 10년 전보다 나빠졌을까?

24

환경전문가의 시선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는 왜 증가하는가



한국환경공단은 미래에 대비하여
기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푸르길

26

환경 그림책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도 으랏차차 힘센 흙이 키운 거야!

28

그린JOB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꿈꿉니다

30

다시 태어난 도시 이야기

낯은 한옥의 매력으로 되살아나는 곳

32

잃어버린 자연을 찾아서

가슴에 달을 품은 사랑스러운 숲 파수꾼

34

웰빙 DIY

일회용 종이컵, 버리지 마세요!

36

탄소발자국을 따라서

친환경 즐거움이 가득한 영산도 한 바퀴!

38

환경놀이터

코펠 농구
얼음판 온몸 볼링

다함께 걷는길

40

K-eco 전시회

모두 함께 실천하는 환경 사랑! 함께해요~ 환경사랑*

42

함께해요~ 환경사랑* 1

내가 먼저 앞장서는 환경 사랑의 시작

44

함께해요~ 환경사랑* 2

최정예 환경 수문장의 진짜배기 환경 사랑!

46

환경맨 아웃터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든든한 조연자

48

K-eco 말, 말, 말!

크리스마스에 K-eco인들이 산타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50

K-eco 클래스

못 입는 헌 스웨터로 작품을 만들어볼까?

54

인턴 다이어리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56

K-eco News

58

초록 우체통

자연과 인간이 행복하게 공존하고,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환경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사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공단은 글로벌 종합환경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환경 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촉진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미래를 여는 환경전문기관’을 공단 비전으로 설정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건강한 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환경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폭우, 가뭄 등 기상이변,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 훼손, 물 부족, 에너지 고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 발생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의 심각한 환경 위기는 정부, 기업, 국민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여러 생각들을 정책과 실천으로 협업,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보는 정보와 교류, 협력의 장으로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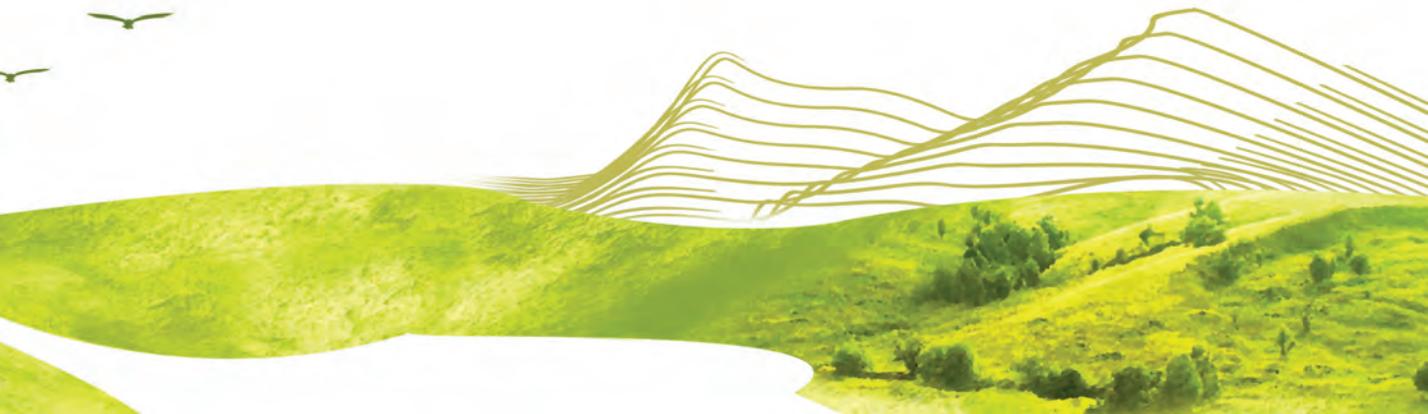


공단은 사보를 통해 최신 환경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사보의 주인은 독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 아이디어나 정책에 관한 의견은 환경발전과 정책수립에 큰 힘이 됩니다.
부족함에 대한 질책은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공단은 사보를 통해 최신 환경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은 소중히,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여 여러분과 함께 환경 복지
를 향한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강근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친환경 전략

산업부문에서 기술혁신에 의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있을 때, 이를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우리 인류는 대체로 3차례의 큰 산업혁명을 만들어 냈다. 영국에서 18세기에 증기기관과 함께 시작된 1차 산업혁명, 20세기 초 전기의 발명으로 인한 2차 산업혁명, 20세기 중후반 컴퓨터 확산에 의한 3차 산업혁명이 그것이다.

글 박주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前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최근 4번째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번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는 달리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와 같이 세상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이끌기 보다는 다양한 기존의 기술이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초연결사회를 구현해 내는 세상이다.

지금까지는 회사, 가정, 학교 등 개별 조직 내의 연결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는 개별 조직을 넘어 지역,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되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게 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결은 정보공급자와 수요자가 분리된 일방적 연결이었다면, 앞으로의 연결은 공급자와 수요자 구분이 없는 양방향 연결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 환경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좀 더 좁혀 말해, 4차 산업혁명은 경제시스템에 투입되는 천연자원 중 특히 에너지의 양을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초연결사회 구현은 전력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전기 먹는 하마로 여겨지는 서버의 용량은 대규모로 증가할 것이고, 인공지능에 의해 제어되는 사물인터넷과 자동화된 생산설비는 거의 모두 전기로 작동될 것이다. 전기 사용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환경 부담을 증가시킬 요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초연결사회에서 쌍방향 정보 소통은 에너지 수요 관리와 전기 생산 방식에도 큰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전기 공급자에 의한 일방적 수요관리에서 벗어나 개별 소비자별 맞춤형 수요관리가 가능해질 것이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왜냐하면, 초연결사회에서는 전기생산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협력하며 재생에너지의 최대 기술적 약점인 ‘생산의 간헐성’을 훨씬 효과적으로 보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환경부담을 완화시킬 요인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관리 전략은 초연결사회에서만 가능한 개별소비자 맞춤형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경쟁화해야 한다. 다양한 전기생산자, 수요관리 회사 등이 출현해야 개별 소비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요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시장을 독점한 생산자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요인도 부족하고 또 관리능력도 떨어진다. 다양한 특성을 갖는 중소형 생산자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때 기상천외한 맞춤형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가 수익 창출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들 사업의 성패 여부는 결국 친환경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해 주느냐의 여부다. 환경의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에너지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친환경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에너지 가격 체계를 갖추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친환경기업의 창업이 이어지며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도 함께 개선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과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시장 개편을 유도하는 정책개발에도 힘을 필요로 한다. 🌍



미래대비 기관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노력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한국환경공단은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환경행정을 구현하고, 환경문제의 사전예측 및 대응으로 환경 개선과 환경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세운 목표와 과제를 함께 알아보자.



전략목표 (2018년~2022년)

전략과제 1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전략과제 2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미래성장동력 발굴

전략과제 ①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환경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

공단이 수행·지원 중인 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특성화대학원 수료자의 취업 지원 강화



동반성장 확대로 상생문화 조성

성과공유제 확대 및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 강화로 동반성장 평가등급 우수 유지



통합환경관리제도 확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18) 환경전문심사원 운영, 대상업종 확대 등 사업 확산

전략과제 ②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미래성장동력 발굴



환경 빅데이터, IoT 활용 강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 과제를 발굴해 환경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



해외 환경사업 확대

해외환경사업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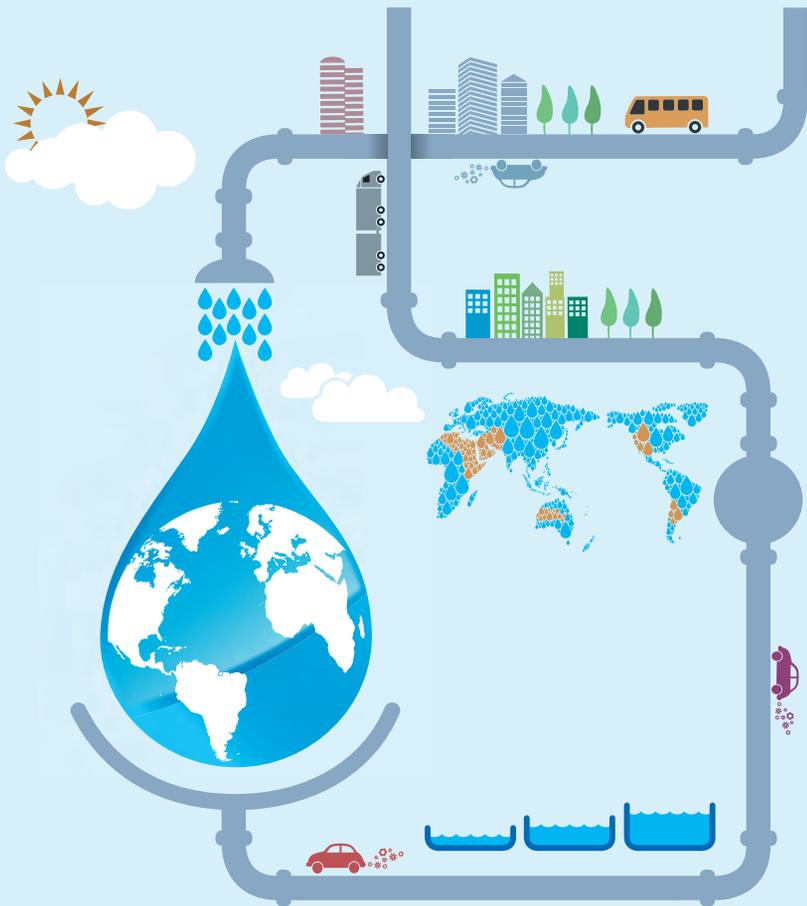
미래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미래사업 로드맵 연차별 전략실행 및 성과관리 강화로 지속성장 기반 강화

* 「2025 미래사업 로드맵」 ('16.10월 수립)에 따라 기관의 중점사업, 신성장동력 사업을 선정해 추진 노력과 성과를 평가 중

물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전초기지가 되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비전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The new hub of KOREA WATER CLUSTER)

핵심가치

- 융합
- 미래도전
- 글로벌
마인드

핵심전략

물산업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기능 강화'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클러스터 운영 고도화'
 NEW기업지원 모델 도입으로 '클러스터 글로벌화'
 물산업 Water Hub를 위한 '클러스터 전문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란?

세계 물시장은 현재 800조 원의 규모로 연평균 3.7%의 성장전망을 보이는 커다란 시장이다. 국내 물시장 역시 연간 130억 달러로 세계 12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 물산업은 현재 침체를 겪고 있다. 인프라 투자의 포화로 인한 시설투자 위축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는 물기업 기술혁신 미흡과 가격경쟁 위주의 저수익 구조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주도의 강력한 물산업 육성정책과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이 시급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한국환경공단을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물산업 클러스터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적단지로, 현재 대구 광역시 달성군 국가산업단지내 부지 14만 5,168㎡ 규모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이하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중에 있다.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물융합연구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물산업 진흥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물 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실증 시험할 수 있는 실증플랜트, 종합관망 시험동 등의 실증화 시설도 마련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과 2019년 7월 운영 개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 전문가 한국환경공단에 맡겨주세요!

올 6월에 제정·공포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

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87년 환경오염 방지 및 보존을 위해 환경오염방지사업단으로 출범한 이후 30여 년간 하·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질오염 방제 및 감시 업무, 지방상수도 설치·운영 등 물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에 공단은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별 지원으로 국내 물산업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을 시작하는 '19년 7월부터 '21년까지는 물산업 핵심기술 개발, '22~'25년까지 사업화 추진, '26년부터는 해외진출 본격화 및 해외매출을 확대하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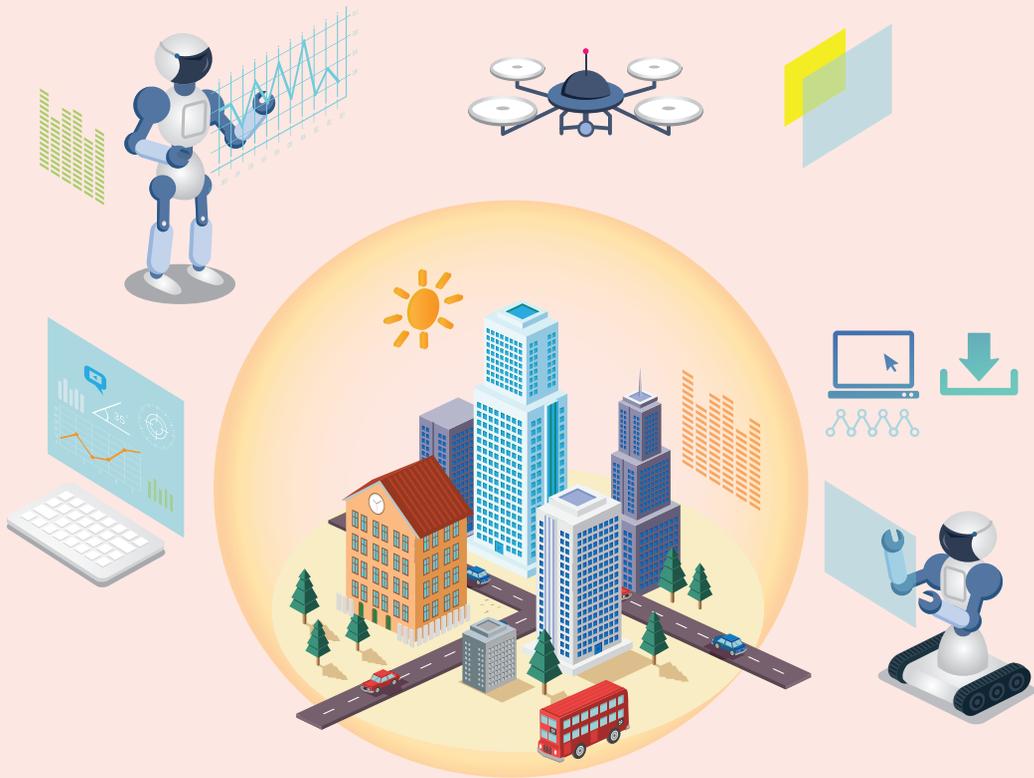
물 기업 육성과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물산업 클러스터로 인해 지역사회에 예상되는 파급 효과는 다양하다. 고용 창출 및 기업 공생 발전은 물론, 물산업 기술혁신 허브를 조성하는 등 관련 산업의 폭넓은 발전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지역 물산업 산학협력 활성화, 대구 물산업 전문 인적자원 육성 등 물산업 클러스터는 지역 및 국가산업 발전 등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4,68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19억 원, 고용유발효과 3,598명, 취업유발효과 4,502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2,82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627억 원, 고용유발효과 2,817명, 취업 유발효과 2,025명 등의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물산업 클러스터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물산업을 통한 근로자의 직·간접 고용 및 유관 산업 발전으로 대구·경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대효과

국가 측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통한 환경정책 효율성 향상

1. 데이터 기반의 환경정책 실효성 제고
2.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구현
3.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국민환경안전 예측기반 마련
4. 환경 측정 시설 등의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대국민 측면

국민 환경개선, 환경행정 만족도 향상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1. 환경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국민 환경 체감도 향상
3. 환경 민감 계층 보호 기반 확보
4.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화두, ‘빅데이터’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화두는 단연 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이나 저장, 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한다.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에 새로운 가치(Value)라는 의미까지 더해진 ‘4V’가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규정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각종 업무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한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환경행정 혁신을 꾀하다!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수단으로 작용함에 따라, 환경부 역시 기관별·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정보를 융합·분석하여 환경현안에 대한 미래예측과 그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 등 기관별, 매체별로 산재해 있는 환경 데이터를 한 곳으로 연계·수집·저장하고, 정제·표준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공유,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별·매체별로 흩어져 있는 환경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체계화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로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양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행정의 혁신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한다.

튼튼하고 든든한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정보융합센터’

환경데이터 생산을 위해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총 143개로, 한국환경공단(29%), 국립환경과학원(18%), 환경산업기술원(16%) 순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매체는 물·상하수도(25%), 기후·대기(15%), 자연환경(14%) 등으로 환경데이터를 생성·축적하고 있다. (‘18.5월 기준)

한국환경공단은 물, 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 전 매체에 걸친 사업 수행을 통해 약 2백억 건 이상의 환경데이터를 생산·보유하고, 이를 다른 데이터와 연계하여 환경정책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빅데이터 플랫폼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전담조직 ‘환경정보융합센터(TF)’와 ‘빅데이터플랫폼구축팀(TF)’ 구성을 완료하였다. 환경정보융합센터(TF)는 플랫폼 구축, 환경데이터 수집, 데이터품질관리, 서비스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향후 환경 데이터 포털, 데이터 시각화, 공간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빅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공단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와의 융합을 기대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 또 다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하여 각종 환경현안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질 개선 및 환경보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층간소음 고민,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다툼이 벌어졌다는 소식은 이제 놀랄 것도 없는 일상이 되었다.

이웃 간의 분쟁을 넘어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층간소음.

공동주택의 확대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뜻한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살펴본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71%가 아이가 뛰거나 성인이 걷는 발걸음소리였고, 뒤를 이어 망치질 소리가 3.8%,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가 3.3%, TV나 청소기,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3.2%를 차지하였다.

층간소음 해결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원상담센터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 및 갈등 완화를 유도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당사자가 직접 소음을 일으키는 가구를 찾아가

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것보다 제3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권해지고 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비실에 호소하거나 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통은 계속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에 전문가가 투입되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 간의 해결에 맡기지 않고 제3자 또는 전문가가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개설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전 화상담당은 130,682건으로, 일평균 81건, 월평균 1,654건이 진행되었다. 전체 전화상담 중 28.5%는 현장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제공하는 2단계 현장 진단 측정을 신청하였다. 현장 진단 측정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34,274건이 실시되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서비스 내용으로는 먼저 콜센터 업무가 있다. 콜센터를 통해 민원인들은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 시 대처방안, 해결사례 제시 등의 전문 상담을 통한 고충 해결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 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쟁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소음 측정·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는 전국의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혹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운영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신청대상 :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전화접수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

깊은 밤, 자연과 함께 음악과 함께

2018 환경콘서트 가을★별 헤는 밤

깊어가는 밤하늘 위에 시 한 줄 수놓은 듯 서정적 감성으로 물든 '2018 환경콘서트 가을-별 헤는 밤'. 밤 깊도록 콘서트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문화비축기지는 시민들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었다. 환경 지킴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긴 콘서트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보았다.





한국환경공단과 MBC FM4U가 함께한 환경콘서트

1973년 석유파동 후 석유를 비축하기 위해 건설한 석유비축기지가 시민을 위한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문화비축기지. 도심 속 편안한 휴식처이자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이곳에서 '2018 환경콘서트 가을 별 헤는 밤'이 개최되었다. 한국환경공단과 MBC FM4U가 함께한 이번 콘서트는 넓은 공연장이 금세 가득 찰 정도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환경콘서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연장 밖에는 부스가 마련되었다. 관객들은 관심있는 환경 분야에 직접 스티커를 붙이며 소통하는 이벤트로 환경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공단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 환경분야에 대해 뉴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세상을 깨끗하게, 함께해요~ 환경사랑*

‘함께해요~ 환경사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샌드아트 영상에 양요섭, 문지애의 현장 더빙이 가미된 동화상영으로 공연의 첫 무대가 장식되었고, 이어서 다니엘 린데만이 무대에 올라 환경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자연과 함께한 MBC FM4U 청취자들의 추억이 담긴 사연이 어우러진 토크콘서트는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기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떠올리는 시간이었다. 특히 사연과 함께 보내온 청취자들의 사진은 자연을 잊은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에 얽힌 향수를 달래기에 충분

하였다. 한 청취자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 자연과 함께한 추억이 많습니다. 제 고향에서 보여준 건 산 밖에 없어요. 그때 자연이 준 감사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라는 사연과 함께 보내온 어린 시절 마을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화면에 등장하자, 저마다 추억을 회상하는 듯 객석에서는 잔잔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토크콘서트에 이어 가수들의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와 객석은 축제 분위기로 금세 바뀌었다. 이승환, 장필순, 정영, 선우정아와 요정들(양요섭, 정승환, B1A4 산들)에 이르기까지 이름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뮤지션들이 이날 무대를 장식하였다. 공연 무대 중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생활수칙 10가지’를 관객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하기’, ‘물 받아 설거지하기’, ‘종이컵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 빨대 사용하지 않기’,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중이청구서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기’,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누르지 않기’, ‘문풍지, 에어캡 등 단열재를 사용하여 난방비 절약하기’,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그린터치) 사용하기’ 등.

밤이 깊어갈수록 날씨는 점점 더 쌀쌀해져 갔지만, 무대와 객석의 열정 때문인지 야외 콘서트장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이 시민들과 함께, 자연과 함께, 음악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헤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2018 ECO HEADLINE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이슈를 소개하고 환경에 관련된 세계 트렌드를 살펴본다.



힌두교 최대 명절 디왈리 시즌 최악의 대기오염, 주범은 ‘폭죽’

지난 11월 7일, 인도 힌두교 최대 명절인 디왈리 축제가 시작되면서 현지 대기 상태가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디왈리는 빛이 어둠을 이긴 것을 축하하는 축제로, 인도인들은 디왈리 때 더 많은 빛을 밝히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디왈리 기간에 많은 양의 폭죽을 터뜨린다. 8일 오전 한때 뉴델리 아난드 비하르 지역의 ‘인도 공기질지수(AQI)’가 최대치인 ‘999’를 찍기도 했다. 9일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 경기장 인근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한 결과 7일 오후 5시 $74\mu\text{g}/\text{m}^3$ 이던 $\text{PM}_{2.5}$ (지름 $2.5\mu\text{m}$ 이하인 초미세먼지) 수치가 8일 오전 1시 1천 $990\mu\text{g}/\text{m}^3$ 로 약 27배나 경증 뛰었다. 이 지역 $\text{PM}_{2.5}$ 농도는 8일 오후 1시가 돼서야 $183\mu\text{g}/\text{m}^3$ 로 내려갔다.

이같은 사정은 뉴델리 내 여러 지역에서도 비슷했다. 힌두스탄타임스가 인도 환경당국의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8일 새벽 뉴델리 곳곳의 $\text{PM}_{2.5}$ 수치는 한때 1천 500~3천 $\mu\text{g}/\text{m}^3$ 까지 올라갔다. 특히 뉴델리 북부 와지르푸르의 이 수치는 7일 오후 6시 $73\mu\text{g}/\text{m}^3$ 에서 8일 오전 2시 4천 $659\mu\text{g}/\text{m}^3$ 로 순식간에 약 64배나 치솟았다. 인근 주(州)의 논밭 태우기나 노후 차량의 매연 등도 뉴델리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적어도 디왈리 축제기간에는 폭죽이 단연 스모그의 주범인 셈이다.

물론 인도 정부는 폭죽을 마구잡이로 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디왈리 때 밤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 동안 ‘친환경 폭죽’만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유해 폭죽을 사용했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폭죽이 터진 것이다.

올해 공식적인 디왈리 축제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었다. 디왈리는 끝났지만 최악의 스모그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뉴질랜드 상징 키위 새, 100년만에 수도 컴백?

뉴질랜드를 대표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의 국조 ‘키위 새’가 고양이 등의 공격으로 멸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키위 새 보호 노력 덕에 키위 새는 점차 그 개체 수가 늘고 있고, 얼마 전에는 100여 년 만에 수도 웰링턴의 회 옆에 둠지를 틀게 돼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 11월 전했다.

뉴질랜드에는 키위 새 6만8천여 마리가 살아남아 있으나 매년 2%씩 감소하고 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키위 새 수백만 마리가 뉴질랜드에 살았으나 개와 고양이, 담비, 쥐 등의 공격으로 개체 수가 확 줄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키위 새 보호를 위해 ‘2050 무(無)포식동물 목표’를 설정하고 개 등 포식동물 포획에 나섰다. 동물보호주의자들은 이런 노력에 힘입어 키위 새가 한때 살았던 지역으로 되돌아올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50 무포식동물 목표’를 강력히 지지해 온 저스틴 레스터 웰링턴시장은 “키위 새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보호단체들이 연합해 설정한 이 목표에 따르면, 웰링턴을 둘러싸고 있는 공공 및 개인 용지 2만 헥타르에서 앞으로 3년간 광범위한 포식동물 포획을 진행한다. 이에 힘입어 키위 새가 포식동물이 사라진 지역으로 되돌아오면 다른 야생동물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급증세... 불법벌목이 주요인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최근 들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지와 가축 사육을 위한 목초지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광산 개발 등을 위한 불법벌목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브라질 일간 폴라 지 상파울루는 과학기술부 산하 국립우주연구소(INPE) 자료를 인용, 올해 8~10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1천 6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1월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8.8% 증가한 것으로,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경고를 입증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마존 인간-환경연구소(Imazon)는 지난 8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보고서는 브라질 정부의 공식 자료에 앞서 나오는 것으로,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증감을 가능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INPE의 조사에서 2016년 8월~2017년 7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은 6천 624㎢로 파악돼 3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은 2013년 8월~2014년 7월에 4천 571㎢로 이전 기간보다 15% 감소한 이후 2014년 8월~2015년 7월에 24%(5천 12㎢), 2015년 8월~2016년 7월엔 27%(7천 893㎢)로 증가세를 계속했다. 연구소가 공식 조사를 시작한 1988년 이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가 가장 심했던 것은 2004년의 2만 7천 772㎢였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 브라질 지부는 지난달 초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브라질에 속한 ‘아마존리아 레 가우(Amazonia Legal)’에서 현재 개발 중인 광산이 5천 67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부는 광산 개발이 대부분 열대우림 보호구역에 포함돼 불법벌목 등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과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 8개국에 걸쳐 있으며 전체 넓이는 750만㎢에 달한다.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지구 생물 종의 3분의 1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 안데스 지역에서 시작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가로질러 브라질 대서양 연안까지 이어지는 하천의 길이는 총 6천 900km다.

사람 · 물 · 자연이 함께하는 안전한 물 순환도시

경기도 수원시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20세기 이후 전 세계의 화두는 '친환경'이다. 환경 친화적인 생활이 인류와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수원시에서는 여러 환경 친화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도시 전반에 자연 상태에 근접한 물 순환 구조를 만드는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시청 옥상에 설치된 레인시티 빗물항아리



국제 환경정책 연수 중남미 3개국 벤치마킹



2018 에너지글로벌어워드 국가상 수상

도시를 구하는 슈퍼맨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수원시는 2009년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빗물 관련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며 2013년부터 본격적인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은 사람·물·자연이 함께하는 안전한 물 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전반에 자연 상태에 근접한 물 순환 구조와 빗물을 재활용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이다.

수원시 곳곳에 설치한 빗물이 투과되는 투수(透水)블럭 등 LID(저영향 개발) 시설은 지표면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해 발생하는 수질 오염을 줄이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곳곳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시내에 7만 7천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중수도 설치사업으로 빗물과 중수도를 연계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10여개의 대형 저류조(전체 저장용량 4만 550톤)에 저장된 빗물은 가뭄 시 농업용수, 공원·가로수 등 조경용수, 공사장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급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주유기 모양의 빗물 공급기에서 시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저장된 빗물을 받아갈 수 있다. 또한 모아둔 빗물을 자동차 도로 표면에 뿌리도록 설계된 노면 살수 시스템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빗물 공급장치 등을 활용하여 작년 한 해 동안 빗물 1만 1,800톤을 재활용할 수 있었고, 물 자급률 또한 26%로 높아졌다.

여기서 나아가 올해부터는 도시 곳곳의 자연친화적 물 순환 시스템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수원시는 올해 에너지글로벌재단에서 수여하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환경상 ‘에너지글로벌 어워드’에서 국가상을,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주관하는 ‘그린월드 어워즈’에서 혁신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오스트리아의 환경재단 에너지 글로벌이 1999년 제정한 에너지 글로벌 어워드는 해마다 유네스코(UNESCO)와 유엔 환경계획(UNEP)의 협조를 받아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는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접수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비롯해 지구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진행된 ‘2018 에너지 글로벌 어워드’에는 세계 180여 개국에서 2,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또한 영국 비영리단체인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주관하는 그린월드 어워즈는 전 세계 친환경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영국왕립예술협회·영국 환경청이 인정한 세계 4대 국제환경상인 ‘그린애플 어워즈(Green Apple Awards)’ 수상자 중 최고를 선정하는 국제 대회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환경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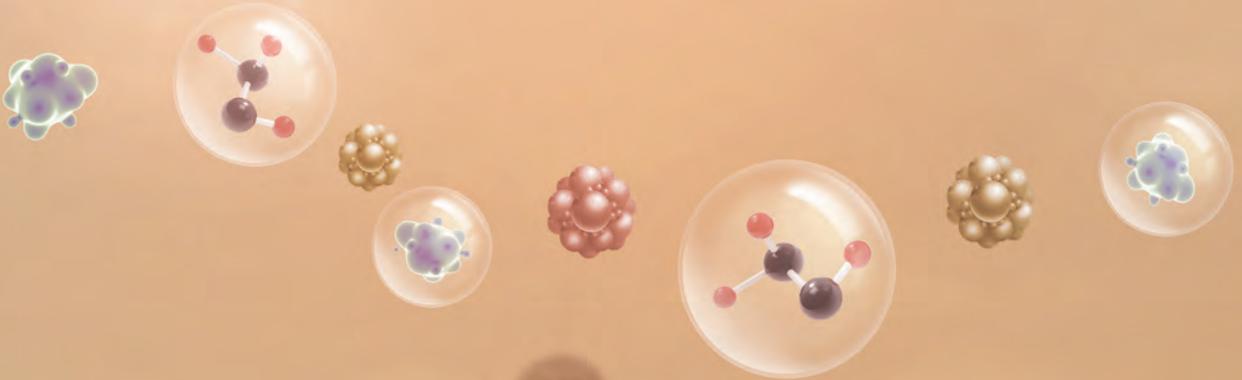
이처럼 세계를 무대로 여러 권위있는 환경상을 휩쓸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수원시의 레인시티 정책은 현재 국내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 동남아시아와 중남미를 포함한 세계 많은 나라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수원시의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이 전 세계에 모범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미세먼지, 10년 전보다 나빠졌을까?

글 이데일리 사회부 김보영 기자



회사원 김모(35)씨는 미세먼지가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보도를 본 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피한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챙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1월 6일 외출준비를 하던 그는 불만을 터뜨렸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공기가 나빠진거지?”
미세먼지가 또다시 기승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6일 오후 5시 수도권에 올 가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

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과 인천, 경기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PM₁₀) 농도가 16시간 이상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하고 다음날 까지도 50 $\mu\text{g}/\text{m}^3$ 를 넘을 것으로 관측될 시 발령한다.
정말 김씨의 말처럼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예전보다 나빠진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미세먼지 오염 세계 최하위?... “사실아냐”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주장은 2016년 미국 예일대·컬럼비아대가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 분석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질은 180개국 중 173위, 초미세먼지 지수는 174위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일부 학자들이 인공위성 자료로 추정된 불확실한 측정값을 가지고 만든 자료로, 인구 밀도나 도시화 수준이 높은 국가가 나쁜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점수 지표”라고 반박한다.

대표적인 나라인 나이지리아·아프가니스탄의 순위가 각각 126위, 134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던 반면, 유럽의 대기질 선진국가인 스위스가 127위, 독일 137위, 네덜란드 139위 등으로 순위가 낮다. 미세먼지 수준도 일본 134위, 스위스 143위, 네덜란드 149위, 독일 157위로 환경 선진국들이 최하위로 평가된 반면 오염도가 높은 나이지리아·아프가니스탄이 공동 1위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 조사 결과는 이와 정반대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20\mu\text{g}/\text{m}^3$ 이하인 미국, 북유럽, 호주, 뉴질랜드, 서유럽의 대기질 환경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연평균 오염도 $30\sim 49\mu\text{g}/\text{m}^3$ 로 중위권을 차지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국민 인식도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가 서울 등 7대 광역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80.4%로 압도적이었지만 실제 통계 수치를 확인해보면 최근 10년간 전국 주요 대도시의 대기질은 꾸준히 개선돼왔다. 전국의 미세먼지(PM_{10}) 연평균 농도는 2004년 평균 $59\mu\text{g}/\text{m}^3$ 에서 2008년 $53.5\mu\text{g}/\text{m}^3$, 2012년 $45\mu\text{g}/\text{m}^3$ 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3년과 2014년, 2015년 연평균 농도가 각각 49, 48, $47\mu\text{g}/\text{m}^3$ 로 다시 증가했으나 지난해 다시 $45\mu\text{g}/\text{m}^3$ 로 감소했다.

‘나쁜’ 수준 빈도 감소... 초미세먼지도 발생 줄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사실이 아니다. ‘2016년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PM_{10}) 나쁨($100\mu\text{g}/\text{m}^3$) 초과 발생 일수는 2008년 27일에서 2016년 7일로 대폭 감소했다.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해 연평균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며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 등 일부 특수한 상황이 개입돼 나타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외부 요인으로 고농도 오염도의 발생 빈도가 높아져 미세먼지가 심해졌다고 느끼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text{PM}_{2.5}$) 농도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초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해 기록해왔는데, 서울시의 연도별 초미세먼지 추이에 따르면 이 역시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16년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른 서울시의 초미세먼지($\text{PM}_{2.5}$) 농도는 2007년 $30\mu\text{g}/\text{m}^3$ 에서 2009년 $26\mu\text{g}/\text{m}^3$ 로 감소한 뒤 2016년까지 $23\sim 26\mu\text{g}/\text{m}^3$ 의 수준을 유지 중이다.

장 교수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용어나 과학적 사실에 많은 혼선이 있었다 보니 ‘초미세먼지’라는 용어가 마치 전에는 없다가 새로 등장한 신종 대기오염물질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WHO 등에서는 초미세먼지 입자를 PM_{10} 의 미세먼지 기준에 포함해 계속 측정, 평가해왔으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농도와 비례해 증감한다는 사실도 여러 세계적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다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부 지표로 무분별한 공포감만 조성할 필요도 없다. 🌈

* 이 기사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는 왜 증가하는가

글 파이낸셜뉴스 경제부 이병철 기자





10여 년 전 국내 자동차 산업을 취재 중이었다. 지금이야 도로 위의 수입차는 혼한 광경이지만 당시 국내 수입차 시장은 걸음마 수준이었다. 수입차 제조사들이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 시동을 거는 단계였다.

내수 시장은 국내 자동차 업체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 자동차 회사는 안정된 내수 판매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다. 그 틈바구니에서 수입차 브랜드들은 공격적인 영업으로 한국 시장을 뚫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수입차 점유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 5%도 안 되던 것이 올해는 20%에 근접하고 있다.

10여 년 전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것은 당시 수입차 브랜드들의 경쟁이 지금의 미세먼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BMW, 벤츠를 앞세운 독일차 브랜드와 도요타, 혼다를 대표선수로 삼은 일본차 브랜드는 국내 수입차 시장을 놓고 경쟁했다.

사실 말이 경쟁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었다. 클린 디젤을 앞세운 독일차는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일본차 담당자들은 한숨을 쉬었다. 일본차 브랜드가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일본 차종은 대부분 휘발유와 하이브리드였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인 친환경과 고연비를 앞세웠지만 소비자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반면 독일차들은 대부분 디젤이었다. 연비가 좋았고 출력도 뛰어났다. 한 마디로 운전하는 재미가 있었다.

정부도 클린 디젤 정책을 앞세워 디젤차 소비를 촉진했다. 디젤 차량이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다는 이유였다. 휘발유 대비 연비와 출력을 따지면 30%까지 저렴하다는 계산과 클린 디젤의 친환경성까지 합쳐져 인기가 높았다. 소비자들의 디젤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디젤 차량 종류를 늘렸다. 소상공인들의 생계수단인 소형 화물, 승합차와 서민층이 주로 타는 소형 승용차와 SUV 등의 상당 부분은 디젤차가 차

지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 디젤차 비율은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뛰었다. 지난해 전국 자동차 2,253만 대 가운데 디젤차는 958만 대에 달한다.

문제는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데 있다. 한국교통원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286만대가 차량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57%를 차지하고 있다. 또 모든 경유차가 차량 오염원의 미세먼지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자동차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PM_{2.5})의 92.4%가 경유차에서 나온다. 경유차가 870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38%를 차지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은 압도적인 상황이다. 사실상 자동차 중 경유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거의 다 나오고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밝히면서 클린 디젤 정책을 폐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클린 디젤로 선정됐던 95만여 대의 주차료 등의 감면 지원을 줄이고 공공기관은 2030년 경유차 제로를 실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를 도로 위에서 없애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불과 10여 년 전에는 클린 디젤 정책으로 경유차 구매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시 연료효율을 앞세우면서 환경문제는 애써 외면했다. 2006년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경유차 전반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았다. 효율성의 논리가 환경의 논리를 앞세운 결과다. 이제 경유차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개발논리 및 효율성과 친환경이 항상 충돌해왔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효율성이 당연한 가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눈앞의 경제성만을 추구했을 때 더 큰 비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이 기사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도 으랏차차 힘센 흙이 키운 거야!

과학 그림책 <으랏차차 흙>

요즘 아이들은 흙을 만질 일이 많지 않다. 놀이터는 모래바닥 대신 합성 고무바닥으로 변했고, 길가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으로 포장돼 있다.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흙이란 어떤 의미일까? 흙이 우리의 곁에서 어떻게 생명을 순환시키는지 그림책을 통해 자녀와 함께 살펴보자.

글 박주연
그림 이유정



줄거리

으랏차차, 힘센 흙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흙은 공기나 물처럼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일상에서 흙을 볼 일이 많지 않은 우리 아이들은 흙이 왜 중요한지 실감하지 못한다. 과학 그림책 <으랏차차 흙>은 그림을 통해 독자에게 흙의 존재를 보여주면서 흙의 순환과 생명과의 상호작용을 차근차근 풀어간다.

"여기 좀 봐. 싹이 났어! 요 작은 싹이 어떻게 나왔을까?"

흙에서 돋은 작은 새싹에서 부터, 화단의 풀과 밭의 곡식, 그리고 저 거대한 산속의 나무들까지... 흙은 어디에서나 크고

작은 생명들을 키워낸다. 이렇게 흙에서 자란 식물들은 숲을 이루고, 울창한 숲에서는 곤충과 새, 짐승들이 살아간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흙이 키워낸 것들을 먹는다. 탱글탱글 토마토, 울퉁불퉁 감자, 탐스런 무, 오독오독 당근... 흙이 무럭무럭 키워낸 식물을 먹으며 쭉쭉쭉 자란 우리들 역시 흙이 키운 것은 아닐까?

<으랏차차 흙>은 흙에서 어떻게 생명이 자라나는지에 대한 작은 출발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어 내며 흙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흙을 낫설게 바라보게 되고, 책 속에서 던지는 흙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통해 아이들은 과학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흙으로부터 탄생하는 생명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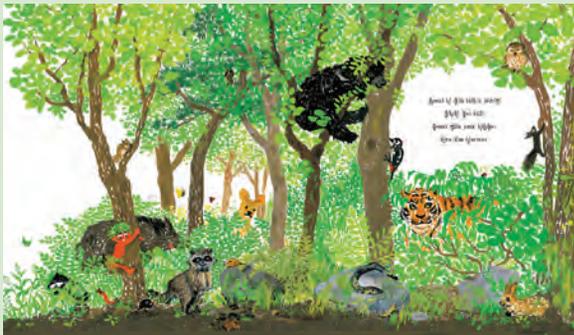
흙이 주는 자연의 생명력

이 책은 책을 읽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과학적 원리를 깨닫고 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흙에 대한 과학 정보들을 실타래 엮듯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또 초등 교과에서 다루는 흙에 대한 지식을 그림책이라는 장르 안에 서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흙이라는 존재에 대해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과학적 정보들을 딱딱한 개념어로 설명하는 대신, 책 속 질문을 따라 흙의 성질, 흙의 순환, 흙의 종류, 동식물과의 관계, 더 나아가 생태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과학적 호기심을 확장해 나가도록 구성했다. <오랫차차 흙>을 통해 어린이 독자들이 일

상에서 흙이 주는 자연의 생명력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의 소중한 흙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국환경공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토양생태계의 보전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공단은 오염우려 지역의 토양조사를 통해 안전한 토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산업단지, 석유법 관련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철도시설부지, 폐광산의 토양 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해 오염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토양오염 지역의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최적의 정화공법으로 토양 속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토양정화사업을 수행하여 토양정화로 국민 모두가 깨끗한 토양환경을 누리고, 우리의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양정화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꿈꿉니다

슬로푸드 전문가 노민영 대표

먹방과 요리프로그램이 넘치는 세상에서 노민영 대표는 음식과 관련된, 조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건강은 물론 주변 환경까지 생각하는 식생활 교육을 실천하며 슬로푸드 전문가로서 그가 걷고 있는 길은 어떤 풍경일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새로운 식문화를 배우다

제철음식은 꼭 챙겨 먹었던, 미식에 가까웠던 아버지와 지금도 여전히 빼어난 요리솜씨를 자랑하는 어머니 덕분에 갖게 된 ‘음식에 대한 애정’은 어쩌면 지금의 그를 만든 가장 중요한 DNA였을 터, 그 유전인자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크게 부인할 바는 아닐 것이다.

“푸드스타일리스트, 외식업체 마케팅으로서 요리와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해왔지만 저는 맛있는 음식보다는 건강한 음식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건강한 음식’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죠. 푸드스타일리스트는 이 식재료가 얼마나 좋고 건강한지보다는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한 직업이고, 외식업도 단가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맛으로 승부를 내야하니 시간이 갈수록 저와 맞지 않음을 느꼈어요.”

건강한 음식에 대한 갈증이 생긴 그는 결국 슬로푸드 철학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탈리아의 ‘미식 과학대학’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음식과 농업’ ‘음식과 인문학’ ‘음식과 사회학’ 같은 과목을 공부하면서 올바른 식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했다. 돌아와서 푸드포체인지를 설립해 소비자 교육을 중심으로 ‘요리’를 다루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부터였다.

“이탈리아 대학에서는 식문화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비자교육을 꼽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식재료를 알고 의식적으로 소비



하면 생산도 바뀌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문화가 이어진다는 것이었죠.”

교육으로 우리 미래를 바꾸다

노민영 대표의 먹거리 교육은 특히나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어릴 때 입맛이 평생을 가고 그 아이들이 자라 음식을 선택하는 소비자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먹거리를 통한 우리의 선택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먹거리 교육에는 비타민, 철분, 섬유소... 이런 단어들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오감을 활용한 교육이 실시된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각교육을 저희도 활용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맛볼 때 감각을 활용하게 하면 민감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맛

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생산과정이나 가공과정 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지요.”

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2년 처음 푸드포체인지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회성 이벤트처럼 실시했던 먹거리교육이 지금은 연간교육으로 진행되는 시범학교가 생길 만큼 그 의식이나 필요성이 확산된 것이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점심급식 시 아이들의 쌈채소 섭취율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자연의 소중함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노민영 대표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다.

“먹거리 소비 방식이나 패턴들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질병도 줄어들며 환경도 좋아 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생활 교육을 통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라요.”

노민영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얻기 위한 방법을 묻자 활짝 미소 짓는다.

“먼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형마트보다는 근처 생활협동조합에서 국산식재료를 구입함으로써 농부들에게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음식을 바꾸세요.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게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한옥의 매력으로 되살아나는 곳

서울 익선동

t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시작으로 불어온 '복고' 열풍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드는 어른들과,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움에 호기심을 갖는 젊은 층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면서 '뉴트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문화 속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있다. 바로 익선동이다.



뉴트로 물결 속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은 세대에게는 독특한 문화로 여겨지는 ‘뉴트로’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인 뉴트로(new-tro)는 단순히 과거의 것을 재현하는 복고가 아닌 복고풍의 스타일에 새로운 감각을 더한 모습으로, 특히 젊은 층이 주도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문화이다.

이러한 뉴트로에 힘입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동네가 있다. 바로 서울 종로구의 익선동.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서 나와 걷다보면 한옥이 즐비한 좁은 골목이 펼쳐진다. 낡은 한옥들이 자리한 그저 오래된 동네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낡은 한옥에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카페, 음식점, 술집 등이 생겨나면서 젊은 층의 발걸음이 잦아졌고, 젊은 사업가들이 모여 기존에 볼 수 없던 분위기의 가게를 열어 유행에 민감한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였다.

익선동 한옥마을은 북촌보다 앞서 지은 도시형 한옥 주거 단지이며 서민들을 위해 건설한 주택단지다. 하지만 기존에 지어진 한옥이 쇠락하고 주변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2004년부터 오래된 건물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에게 한옥 점포를 임

대하던 주민들의 반대로 익선동의 재개발 사업은 실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2015년 12월, 서울시는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역사인문 보행길로 재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이에 익선동 일대를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한옥의 특성을 살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건물 높이와 용도를 제한하는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



했다. 북촌, 돈화문로, 인사동, 경복궁 서측에 이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익선동은 현재 119채의 목조 전통 한옥이 있으며, 그 밀집도가 30.7%로, 7.3%인 북촌, 7.8%인 서촌에 비해 월등한 수치이자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우리의 핫 플레이스를 지키기 위하여

익선동은 서울의 마지막 한옥마을이라는 특색과 함께, 도심 속 한옥마을이라는 흥미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이러한 특징을 살려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노리는 복합적인 도시 재생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익선동의 특색을 보존하기 위해 체인점 형태의 업종을 제한하는 등의 용도 계획도 마련하여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다양하고 유향 있는 지역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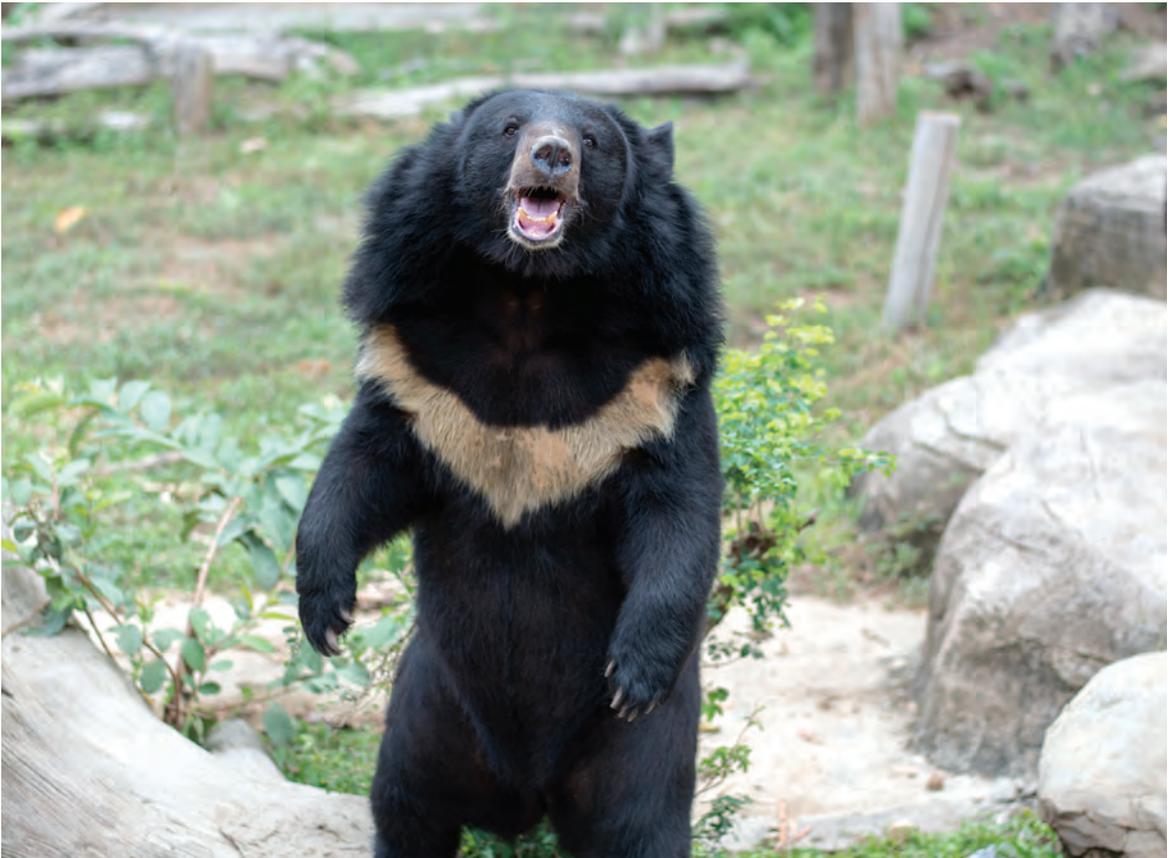
도시재생을 위한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익선동은 이곳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가지게 될 수 있었고,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를 얻으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노력에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 역시 존재한다. 특히, 도시재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피할 수 없는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객 수의 증가로 상권이 좋아지면서 익선동 주변 한옥시세는 현재 평당 2,000만 원 가까이 올랐고, 이에 임대료 부담이 높아진 기존 거주자들과 젊은 사업가들이 내쫓기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상가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는 ‘상생협약’과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장기 ‘안심상가’를 운영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매일같이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 우리의 소중한 옛 추억을 되살리면서도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주는 익선동으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가슴에 달을 품은 사랑스러운 숲 파수꾼

반달가슴곰의 비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곰들이

반달가슴곰은 우리에게 꽤나 친숙한 존재이다.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반다비’는 반달가슴곰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다. 가슴에 있는 흰 털이 초승달 무늬처럼 보여 그 이름도 ‘반달가슴곰’인 이 사랑스러운 곰은 현재 안타깝게도 천연기념물 제329호 및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반달가슴곰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에 서식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위험한 동물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호랑이, 표범 등 총 7만 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계획적으로 제거한 해수구제 정책으로 많은 수가 사라졌고, 비싼 약재로 거래되던 웅담 때문에 밀렵이 끊이지 않아 멸종 직전에 이르러 현재는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강원도 DMZ 지역에 적은 수만이 남아 있다.

반달가슴곰은 어떤 동물일까?

‘반달가슴곰’의 트레이드마크인 가슴의 흰 무늬는 개체마다 모양이 제각각으로 달라서 개체를 구별하는 데 이용되는데, 간혹 무늬가 아예 없는 곰도 있다. 앞발은 사람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하며 긴 발톱을 사용해 작은 물건도 잘 다룬다. 주로 식물성 먹이로 벚나무열매, 머루, 산딸기, 다래 등을 먹는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도토리이다. 봄에는 산림에서 나무의 어린 싹, 잎, 뿌리를 캐 먹으며, 썩은 나무를 파서 곤충의 애벌레와 개미, 곤충의 번데기 등으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한다. 이외에 개울에서 가재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고, 산간벽지에서는 농경지에 내려와 옥수수 등의 농작물을 먹기도 하는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적응이 빠르다.

반달가슴곰은 번식력이 낮은 동물 중에 하나다. 영양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생 새끼를 12~13마리 이상 낳지 못한다. 어미의 영양 상태가 매우 나빠 새끼를 잘 기를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도한 경우에는 출산 직후 자신의 새끼를 물어 죽이는 경우도 있다. 한편, 많은 양의 먹이가 필요한 반달가슴곰은 겨울잠으로 활동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체내에 비축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며 봄을 기다린다. 그래서 겨울철 날씨가 따뜻하거나 어느 정도의 먹이가 있을 경우에는 동면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곰도 있다. 특히 열대 지방에 살거나 연중 먹이를 공급받는 동물원에 사는 반달가슴곰은 동면하지 않는다.

숲을 가꾸는 우리 숲 지킴이

반달가슴곰은 먹이 활동 과정에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숲의 하층부까지 햇빛이 들게 해 키가 작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다. 또 반달가슴곰이 먹은 열매 속의 씨앗은 소화되지 않고 똥에 섞여 나오는데, 그 씨앗은 그냥 땅에 떨어진 것보다 2배 이상 싹이 더 잘 튼다. 게다가 활동 범위가 넓어서 숲 여기저기에 씨앗을 퍼뜨리므로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어 숲 생태계는 더욱 풍성해 진다. 그래서 반달가슴곰은 ‘숲의 파수꾼’으로 불린다. 이처럼 반달가슴곰을 보존하면 그와 생태적으로 연결된 많은 종들의 생존도 보장하므로 생물다양성을 높이게 된다. 🌈



Mini Interview

‘반달가슴곰을 만나다’



진행자: 2018년 평창에서 활약하신 반달가슴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달가슴곰: 진행자 양반, 그 나무 위에서 무얼 하고 계시는지요?

진행자: 아차! 죄송합니다. 곰을 만나면 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 그만 실례를 했습니다.

반달가슴곰: 하하. 길에서 곰을 마주치면 죽은 척을 하거나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을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무를 매우 잘 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나무에 오르는 법을 배우지요.

진행자: 그렇다면 뛰어서 도망가는 것은 어떤가요?

반달가슴곰: 글썩요. 만약 산행 중에 저희를 발견한다면 최대한 조용히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무나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곰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슬며시 뒷걸음을 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최대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뛰어서 도망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진행자: 역시 죽은 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반달가슴곰: 그렇습니다. 서로 대면하는 일이 생기기 전에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저희에게 공격을 당해 쓰러졌을 경우에는 정말로 죽은 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팔로 목덜미를 감싸고 몸을 최대한 웅크리거나 배를 땅에 바싹 붙이고 엎드리세요. 단순히 위협을 가하려는 곰은 발을 물거나 손톱으로 긁어서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곧 돌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숙명의 대결을 펼쳐야 할 테지요. 허허허.

진행자: 반달가슴곰 선생님과 마주치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군요! 하하하. 갑자기 왜이렇게 땀이 나는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회용 종이컵, 버리지 마세요!

종이컵으로 나만의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지도 4개월여가 지났다.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이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기분 좋은 조사 결과도 들려온다. 그렇다면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며 받은 종이컵, 쓰레기 통으로 직행하기 전 색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순 없을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12월, 우리 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한 그루를 장만해보자. 종이는 나무로 만든다. 종이컵은 종으로 만든다. 고로 종이컵은 나무대! 기적의 논리가 가능한 종이컵 트리. 종이컵으로 연말 분위기 물씬 나는 나만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보자.



종이컵을 재활용하여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재료 : 종이컵, 자투리 원단, 트리조명, 가위, 풀, 칼, 펜



1. 먼저 하나의 종이컵을 잘라 원단에 본을 그린다.
2. 각각의 원단에 그린 다음 재단한다.
3. 전체적으로 종이컵에 풀을 바르고 원단을 꼼꼼하게 붙인다.
4. 종이컵 바닥에 칼이나 송곳으로 구멍을 낸다.
5. 구멍을 뚫은 종이컵에 트리전구를 간격을 두고 꽂는다.
6.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친환경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

친환경 즐거움이 가득한 영산도 한 바퀴!

전남 신안군 영산도

잘 보전된 자연자원은 인근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지역에는 가능성, 관광객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자연의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생태관광이다. 바로,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접점인 것이다.



영산도에서 본 흑산도



영산도 탐방로에서 본 마을전경



영산도기암괴석 석주대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순수함을 간직한 그곳

영산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의 동쪽에 유일하게 위치한 아주 작은 섬으로, 과거에는 섬에 영산화가 많이 핀다 하여 영산도라 불리었으며, 이곳의 산세가 신령스런 기운이 깃든 곳이라 하여 영산도로 부르기도 하였다. 과거 400여 가구가 살던 이곳은 현재 28가구 45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고령화되어 장래에 무인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깨끗함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신안-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영산도는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13년 농촌체험·휴양마을, 2014년 환경부 생태관광 모델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쾌적한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자 주민들은 지역발

전을 모색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내 마을공동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마을로 자리 잡았다. 영산8경, 영산10리길, 영산도 벽화의 거리, 낙조가든, 양식이 없는 청정해역에서 채취된 다양한 해산물 먹을거리 등을 자랑하는 영산도는 조용히 머물며 도시에서 찌든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 할 수 있는 힐링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다.

나만의 열두가지 휴식, 영산도 명품마을

영산도는 주민들이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해 꽃길을 조성하고, 해안가를 자체적으로 정비하며 영산도를 탐방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명품 마을 연계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에서 흑산도를 거쳐 배를 타고 두 시간 반을 들어와야 하는 영산도를 방문한 사람들의 배멀미를 달래줄 수 있는 민간요법 '부뚜막에서 우려낸 흰민들레차' 마시기, 석주대문, 비성석굴 등 섬 전체를 돌아보며 각양각생의 기암괴석과 해안절경을 볼 수

있는 해상투어, 영산도 전경과 주변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산 전망대, 이재호 화백의 재능기부를 통해 만들어진 아트벽화로 이루어진 영산도 벽화길, 그리고 과거 영산도 내 소득원이었던 후박나무(상록활엽수) 숲에서 명상 등 홀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숲체험장 등 생태환경을 유지하며 섬 곳곳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방문객들의 숙박을 위해 전통 가옥의 복원을 통해 숙박시설을 늘려, 섬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건축물과 건축방식까지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단체관광을 지양하고,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 신안 영산도 명품마을은 자연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복잡한 도심 속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아름답게 보존된 자연 환경 속에서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생태관광지일 것이다. 🌈

코펠을 향해 슷! 골~

코펠 농구

간단한 캠핑 장비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코펠 농구.
가족이 4명 이상이라면 편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좋다.
코펠과 솔방울, 신문지 등을 이용해 긴장감 넘치는 코펠 농구를 즐겨보자.



재료

코펠, 빈 상자, 신문지나 종이, 솔방울

코펠 농구 하는 법

1. 신문지나 종이, 솔방울로 각자 본인이 쓸 공을 3개씩 만든다.
2. 크기가 다른 코펠이나 빈 상자를 간격과 거리를 다르게 해 바닥에 놓는다.
3. 공을 던질 위치를 정해 바닥에 선을 긋는다.
4. 정해진 선에 서서 공을 던져 코펠이나 상자 안에 공을 넣으면 성공!



온몸을 던져봅시다!

얼음판 온몸 볼링

겨울철 캠핑장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 중 하나로, 빙판 위에서 할 수 있는 놀이다.
빙판 위에 페트병을 세워두고 내가 직접 공이 되어 페트병을 쓰러뜨려보자.
안전과 즐거운 놀이를 위해 놀이를 하기 전 빙판이 단단히 얼었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료

단단히 얼어 있는 빙판, 페트병, 물 조금

얼음판 온몸 볼링 하는 법

1. 두꺼운 얼음이 얼어 있는 빙판 위에 페트병의 간격을 넓게 하여 10개 정도 세워둔다.
2.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페트병에 물을 조금 넣어 무게를 조절한다.
3. 옷을 단단히 여며 입은 후 얼음판에 눕는다.
4. 세워둔 페트병을 향해 부모님이 아이를 힘껏 밀어주거나 스스로 슬라이딩을 한다.
5. 페트병을 많이 쓰러트리는 사람이 승리!



모두 함께 실천하는 환경 사랑! 함께해요~ 환경사랑+

2018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 ‘함께해요~ 환경사랑’을 주제로 진행된 2018 환경 사랑공모전의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지면광고, 정크아트, 사진 총 3개 부문으로 올해 6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역대 가장 많은 총 3,326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환경에 대한 부적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수상작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 차례의 심사를 통해 부문별 15점씩 총 45점이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은 지면광고 ‘머그컵과 팔짱끼기(박이룸 작)’, 정크아트 ‘화려하게 다시 한 번(민성진, 윤성민 작)’, 사진 ‘몸살얇이(김경욱 작)’가 선정됐다. 지면광고 부문 대상 <머그컵과 팔짱끼기>는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아이디어를 찾아내 사람들의 참여를 쉽

게 이끌어 내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크아트 부문 대상 <화려하게 다시 한 번>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과용에 따른 폐해와 바다의 오염이라는 이슈에 부합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 부문 대상 <몸살얇이>는 많은 비에 온갖 생활 쓰레기가 떠내려와 망연자실한 모습을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kecoc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시회, 지면광고, 교과 자료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활용 시 공단 홍보팀(032-590-3013)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면광고 부문



대상

‘머그컵과 팔짱끼기’
박이룸 작



금상

‘게임이 곧 끝납니다.’
송영조, 김지훈 작



금상

‘멸종동물 사진’
조정환 작

친한 사람과 팔짱을 끼듯이 머그컵에 손가락을 끼우는 모습을 팔짱 낀다는 것에 비유해 테이크아웃 컵 대신 머그컵과 친해지고, 사용하지는 취지를 담아낸 작품.

정크아트 부문



대상

‘화려하게 다시 한 번’
민성진, 윤성민 작

아이들과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다가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멸종 위기 동물인 고래로 재탄생시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담아낸 작품.



금상

‘복덩이들’ 박성호 작

금상

‘프레온 퍼피’ 정종훈 작



사진 부문



대상

‘몸살 앓이’ 김경옥 작

대한민국 최대 저수지인 ‘예당 저수지’에 많은 비가 내린 후 온갖 생활 쓰레기가 떠내려 와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담아낸 작품.



금상

‘작업하는 여인들’ 정병철 작



금상

‘흔적’ 이병만 작

내가 먼저 앞장서는 환경 사랑의 시작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자극해온 가장 강력한 이슈 중 하나이다.

하지만 '나부터'라는 의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팀원들이 '생활 속 작은 실천은 나부터'라며 발 벗고 나섰다.





강요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실천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상 속에서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팀원들. 환경 사랑 실천은 ‘나부터’라는 생각이 앞서기에 일상 속 세세한 부분까지 실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설거지를 한 후에 그 물을 버리지 않고 화장실에서 재사용하기, 마트에서 장 볼 때 비닐봉지를 미사용하는 것은 물론, 채소를 담은 비닐도 사용하지 않기 등 남들은 귀찮게 여기는 일들도 이들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기에 이러한 실천이 가능하다고 팀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일회용품 없는 체육대회도 팀원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야외 행사의 특성상 일회용품 사용을 당연시 하던 상식을 깨뜨린 과감한 기획이었기에 팀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된 것. 마실 물은 각자 텀블러에 담아 와야 했고, 도시락도 일회용 용기가 아닌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야 했다.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면 도시락을 먹은 뒤 버려 짐을 덜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면 용기를 다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지 않았다. 김유래 처장은 “체육대회라는 야외 행사의 특성상 일회용품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품 없는 체육대회에 참석하여보니 불편을 조금 감수하면 더 큰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체육대회 후기를 전했다.

‘이제 그만 나를 잊어줘’ 톡톡 튀는 아이디어

팀원들의 사무실 속 일상도 남다르다. 종이컵, 일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등은 이미 사무실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텀블러를 각자 하나씩 들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메시지도 눈에 띈다. “이제 그만 나를 잊어줘. 그럼 안녕”이란 메시지 아래 종이컵을 밀어내는 머그컵 이미지를 탕비실에 게시하여 귀여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회용품 없는 사무실 만들기 캠페인은 테이크아웃을 하는 커피에도 적용된다. 단체로 커피를 주문할 경우 종이컵과 캐리어 사용 대신 커다란 물병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역시도 환경 사랑을 위한 팀원들의 작은 실천이 불러온 아이디어이다.

사무실 인근에 있는 커피숍도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사업계획팀 팀원들의 이러한 실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저희 커피숍을 자주 이용하시는데 테이크아웃도 항상 텀블러나 물병을 이용해서 담아가십니다. 환경 사랑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또한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양산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KNN과 함께 ‘착한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착한 분리배출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하는 본부 임직원들 역시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환경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

최정예 환경 수문장의 진짜배기 환경 사랑!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1팀

매년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함께해요~ 환경사랑’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소문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물을 사수하는 최정예 수문장,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1팀. 과연 대구의 물 지킴이들은 환경 캠페인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을까?





더 널리, 더 가까이, 더 체계적으로

지난 11월,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1팀은 철곡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회 환경오염 사고 예방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참여자 1,200여 명에게 수질 오염 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에너지 절약하기와 같은 ‘함께해요~ 환경사랑’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를 소리 높여 전파했다.

“저희 부서는 업무 특성상 외부 행사 참여 기회가 많습니다. 사업장이나 현장을 방문하는 일도 많고, 백여 명이 참석하는 대형 교육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죠. 따라서 ‘함께해요~ 환경사랑’ 홍보 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부서 특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어요. 팀원 개인이 홍보 매체가 되어 육성으로 직접 캠페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두류수영장 앞에 나가 홍보 배너를 들고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어요. 주민들을 실제로 만나 전달하는 만큼 간접적인 홍보물 사용보다 파급력이 더 컸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짜 성과를 위해

그 어느 부서보다 진지한 태도로 ‘함께해요~ 환경사랑’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수질관리1팀이지만, 재밌게도 캠페인 시행 후로도 사무실 풍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인즉, 이미 직원들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환경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이컵, 나무젓가락, 은박 접시 같은 일회용품은 오래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다.

환경을 지키는 수질관리1팀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 문제를 면밀히 분석

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승만 팀장은 ‘낙동강 중류수계의 수심별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 변동특성’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해 2017년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상을 수상했고, 현재는 인력에 의존하던 수질 오염방제업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무인 드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국가 핵심 선도사업인 “드론”분야의 공공분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때문에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함부로 방치된 오염 물질은 생물 농축성에 의해 끝내 물로 모이게 됩니다. 물 부족은 일차원적인 오염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님비현상 같은 지역 갈등을 초래하곤 하죠. 환경 문제는 결국 사회 질서 문제로 이어 집니다.”

황승만 팀장은 환경 전문가의 견해로 본 환경 운동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양치 시 수도꼭지를 잘 잠그고, 설거지를 할 때 물을 받아 쓰면 물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인식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1팀의 진심이 담긴 활동과 참여를 통해 자칫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는 ‘함께해요~ 환경사랑’ 캠페인의 메시지가 그 울림을 더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굳건한 지킴이로 남아주길!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든든한 조연자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 인재경영처 정보팀 임행진 과장

한국환경공단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

경영기획본부 인재경영처 정보팀은 한국환경공단의 IT를 총괄하는 팀으로, 통합전산센터와 대표홈페이지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모두 사용하는 MIS(경영정보시스템)나 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MIS내에서 회계, 예산, 인사복무, 자금 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팀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전 직원의 업무 공간을 꾸러나가는 셈이다. 이에 정보팀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전 직원들의 내부 민원을 처리하고, 더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시스템 구성을 위해 연간 계획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정보가 모두 모이는 곳이다 보니 정보팀은 늘 바쁘지만,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전산망 분리로 팀원들이 더욱 바빴다. 전산망 분리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해 전자결재를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PC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터넷 전용 PC를 구분하는 것으로, 전산망 분리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의 정보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이뤄냈다.

팀 내 정보통으로 정보보안을 책임지다

특히 정보팀에서 ‘정보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임행진 과장

은 정보팀 내에서도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시스템 구축이나 보안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한국환경공단 정보관리기술자 자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정보보안 전공으로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IT 분야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석사 학위가 있으면 제가 업무를 할 때 IT 기술과 관련하여 볼 수 있는 시야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나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팀원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정보보안에 있어서 오랫동안 임행진 과장과 함께 일을 해온 김해민 과장은 이 점을 임행진 과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임행진 과장님은 선배들을 통틀어서 부서를 잘 챙기세요. 본인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시고, 혹시 도와주시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회사 내의 멘토 같은 분이예요.”

수줍은 모습 뒤에 숨겨진 내공과 카리스마로 정보팀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을 맡고 있는 해당 부서들의 정보보안을 총괄하며 회사 내 현명한 멘토로서 한국환경공단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임행진 과장. 그녀가 보여줄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정보팀이 말하는 임행진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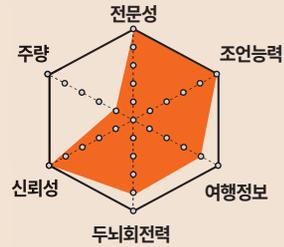
12월 1일 사수자리

정열적인 행동력이 있어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며 호기심이 많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화살처럼 곧고 빠르다.



나란 사람

출퇴근 거리가 긴 데도 불구하고, 업무는 물론, 자기계발까지 할 정도로 부지런한 것이 그녀의 강점이다.



맡고있는 업무

기관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정보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최근 관심사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광고 문구처럼 일과 공부에 지칠 때면 어디로 여행을 떠날지 상상해보곤 한다. 벌써 꽤 많은 나라를 다녀온 그녀에게 있어서 아직도 세상은 넓고, 가볼 곳은 많다.

팀 내 위치

업무에 관련된 질문을 받아 해결해주는 팀 내 지식인(人)으로, 전문성은 물론, 판단력도 높아 답변의 신뢰도가 높다. 업무뿐만 아니라 여행에서 얻은 잡학다식은 덤이다.

좌우명

현재에 충실하자

DAILY SCHEDULE



크리스마스에 K-eco인들이 산타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 손꼽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시나요? 머리맡에 커다란 양말을 걸어두고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잠들었던 그때처럼, K-eco인들이 산타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해보세요. 산타할아버지가 <자연 가까이 사람이 가까이>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잘생기지 않아도, 키가 크지 않아도, 재미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 집 거실 소파에 한 몸인 것처럼 밀착해서 TV보고 놀아주시길 남편 좀 배달해 주세요, 산타할아버지!

본사 자원순환본부 제도운영처
자동차환경성보장제팀 한혜영 님

8살 아들이 드디어 보조바퀴를 떼어내고 두발로 씩씩 달리는 로드바이킹의 맛을 알았답니다. 산타할아버지가 자전거를 선물로 주시면 좋아할 듯 하네요! 산타할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아직 가지고 있는 아들이 이제 “정말 산타가 있다?”라는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할 나이가 되고 있습니다TT

본사 물환경본부 상수도처
상수정책지원팀 황태웅 님

건강하고 잘생긴 훈남 아들을 선물 받고 싶네요. 현재 임신부로, 출산예정일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이에요!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에너지처
폐자원품질검사팀 서원주 님

20대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캡슐! 요즘 삶이 재미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ㅠㅠ 20대로 돌아가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밤늦게 게임도 즐기고 싶네요! 상상만으로도 그 어떤 선물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본사 물환경본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준비단 운영준비TF 김종대 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순간이동능력을 선물 받고 싶어요^^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팀
김선미 님





부모님의 건강한 한 해를 선물 받고 싶어요. 매년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작지만 가장 소중한 희망입니다.

::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POPS배출원조사팀 박건우 님

나이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 누나는 결혼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고 아직까지 그저 아이들 같은 남자만 좋아하는 철없는 아이 같아요. 본인보다 어린 지코가 멋있다고...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비록 아직 철이 없고 부족한 누나지만 알고 보면 귀찮은 여자예요. 멋있고 듬직하고 능력 있고 성격 좋은 매형 선물 부탁드립니다!

::

본사 환경시설본부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정책지원팀 김준일 님

10일 동유럽 여행 티켓을 기대해 봅니다. 떠나고 싶어도 여건상 늘 망설여지는데, 떠날 수 있도록 산타할아버지의 썰매를 보내주세요~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팀 이민선 님

공단에서 멋진 팀원들과 함께 인턴 생활을 하다 보니 공단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공채 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도록 산타할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본사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처 환경포장관리팀 이재창 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힘들게 준비한 시험이 끝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 합격이라는 큰 선물을 받는다면 날아갈듯이 기쁠 것 같습니다~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2팀 이승윤 님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설렘이 있는 질문이네요^^ 어릴 때는 장남감이나 과자세트처럼 지금은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을 받았을 때 참 행복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건강이 최고라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이제 막 일병이 된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보고 싶네요. 성탄절에는 산타할아버지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조증곤 님

못 입는 헌 스웨터로 작품을 만들어볼까?

헌 실로 부리는 마법, 스트링아트

겨울이 왔다. 옷장 속에 잠들어 있던 겨울옷들을 잠에서 깨워야 할 때, 오래 입어 낡은 스웨터는 과감히 정리해야 하지만 스웨터에 담긴 추억들이 떠올라 쉽사리 버리기 어렵다면 그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방법이 있다. 일단 스웨터를 풀어보자. 헌 실을 사용한 스트링아트로 낡은 스웨터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따뜻하고 포근한 연말을 위한 아이템

색다른 연말, 즐거운 체험을 위해 여섯 명의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뭉쳤다. 한국환경공단 본사와 가까운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자리한 공방에서 만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얼굴에는 벌써부터 스트링아트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 스트링아트 클래스에 참가한 직원은 총 6명.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관리팀 민희경 과장,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통계팀 한송이 사원,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감축팀 이가화 사원과 최재영 사원, 경영지원처 총무팀 이미선 사원, 대기환경처 대기관제팀 송민수 사원이다.

주변의 추천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온 직원부터 스트링아트에 대한

지식과 공방의 정보까지 꼼꼼하게 파악해 온 직원까지... 클래스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모두 제각각이지만 예쁜 작품을 만들기 위한 열정과 설렘은 모두가 한마음이다.

오늘의 스트링아트 수업을 지도해 줄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색색의 스트링아트를 펼쳐낼 기본이 되는 나무 합판에 원하는 도안에 맞게 구멍을 뚫은 뒤 실을 감을 지시대 역할을 할 못을 흔들리지 않게 쿵쿵쿵 박아 넣는다.

못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실을 감을 차례.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더 특별한 스트링아트를 위한 비장의 무기가 있다. 바로 트리전구이다.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을 위해 선생님이 트리전

구를 선물한 것. 산타클로스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듯 직원들의 얼굴이 환해진다. 전구의 빛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위치를 잘 확인하며 못에 전구를 감아주면 스트링아트에 더욱 새롭고 화려한 분위기가 더해진다.

전구를 감은 뒤에는 드디어 스트링아트의 주인공인 실을 감을 차례다. 원하는 색깔의 실을 고른 뒤 실을 감는 작업을 시작한다. 테두리를 먼저 둘러준 뒤 무규칙적으로 선을 그어 색을 칠하듯이 실을 감아주면 된다.

오늘의 스트링아트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스트링아트가 재활용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작업이기 때문이다. 스트링아트의 기본이 되는 나무 합판은 오래 되어 못 쓰게 된 나무 도마를 재활용할 수 있



(왼쪽부터)이미션 사원, 송인수 사원, 민희경 과장, 한송이 사원, 이가화 사원, 최재영 사원

고, 스트링아트의 메인이 되는 실은 우리가 겨울철 즐겨 입을 스웨터를 풀어서 나온 헌 실을 사용할 수 있다. 낡고 망가져 더 이상 못 쓰게 된 물건들을 재활용해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저마다의 예쁜 마음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실의 향연

모두들 스트링아트에 열중해 있는 모습이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열중하는 수험생인 듯 진지해 보인다. 어려운 부분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옆자리 동료에게 도움을 받으며 한 획 한 획 완성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정성이 필요한 과정이다.

직원들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이

며 모두의 감탄을 불러일으킨 직원도 있다. 바로 최재영 사원이다. 가장 숙달된 모습을 보이며 실력을 발휘한 최재영 사원은 자신의 작품을 일찌감치 마무리한 뒤 주변 사원들을 도왔고, 어려운 것이 생기면 최재영 사원을 향해 “선생님!”을 외치는 여러 직원들 덕에 최재영 사원 역시 선생님만큼이나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이가화 사원은 최근 셀프 인테리어로 집을 새롭게 단장했다. 오늘 만든 작품을 아이의 방에 인테리어로 사용하기 위해 도안부터 실 색깔까지 집의 분위기를 고려하며 아이의 방에 어울릴 만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점차 작업이 손에 익어 익숙해 여부가 생기자 공방에는 이야기꽃이 피어

오른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작품에 집중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미션 사원과 송인수 사원. 각각 구름과 곰돌이 도안을 선택한 두 사람은 작품에 필요한 색이 한 가지가 아니기에 다른 도안에 비해 손길이 두 배 세 배가 가는 작업이다. 작업에만 열중하던 두 사람은 작품이 완성된 뒤 하나같이 큰 만족감을 표현했다.

“평소 손재주가 없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기 전에는 ‘과연 이걸 정말 완성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았고,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묵해보이긴 했던 송인수 사원이 자신이 만든 작품 속 곰돌이처럼 귀



옆게 웃어보였다.

“제가 한 노력에 비해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전구를 켜 무드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미지와 딱 맞는 알록달록 예쁜 작품을 완성시킨 이미선 사원의 얼굴에서도 뿌듯함이 묻어나왔다.

오늘 수업 내내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작업에 임한 민희경 과장은 2003년에 입사한 최고참 직원으로, 입사 이래 이러한 직원 체험 코너에 처음 신청해봤다고 한다.

“나이가 드니까(?)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고, 완성된

작품을 보니 뿌듯합니다. 오늘 만든 작품을 거실에 두고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맘껏 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체험 내내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던 한송이 사원은 강렬한 빨간 하트를 만들었다. 금색 실로 테두리를 두르면 어떻겠느냐며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본인만의 작품을 완성시켰다. 공들여 완성한 작품은 부모님께 선물하겠다며 선물을 받아든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한송이 사원의 얼굴에 반짝 반짝 빛이 난다.

“제가 직접 만든 작품을 선물 받은 부

모님께서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뿌듯한 마음입니다. 그냥 버려질 수 있는 것들을 재활용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뜻 깊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어서 빨리 집으로 가 부모님의 안방에 제 뜨거운 사랑을 놓아드리고 싶네요.”

길고 긴 시간 끝에 완성된 작품을 품에 안고 집으로 향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무채색의 겨울이 색색의 실로 만든 멋진 작품으로 알록달록 환하게 채워진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색색의 실로 채운 스트링아트가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주었길 바란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IEETP) 9기 이민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근무

포기의 순간,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후 얻은 기회를 통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서 프로그램 어시스턴트로 근무하며 다양한 환경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국제기구의 커넥션 포인트를 찾아서

우연히 다녀온 남미 여행에서 밤에는 온수가 끊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다른 여행객들을 위해서 10분 내외로 샤워를 끝내야 했다. 또한 해발고도가 약 3,600미터인 볼리비아 라파즈로 가는 야간버스에는 밖에 눈이 내리는데도 히터를 틀어주는 대신 자리마다 담요만 준비되어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환경을 경험한 후에, 국제무대로 나아가 환경적인 불평등을 완화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할

3학년 2학기에, 그렇게 나는 국제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외교부의 JPO, UN커리어센터 등 국제기구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장벽이 너무 높았다. 정보가 부족하여 어떠한 국제기구가 있는지, 환경에 특화된 곳이 어딘지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운이 좋게 국제환경전문가양성과정 설명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경’이라는 특정한 분야로 수업이 구성돼 있고, 홍보 책자의 후기를 읽어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8번의 실패, 그리고 EAAFP 컨설턴트가 되기까지

“민실 학생, 인천 송도에 있는 철새 보호하는 사무국인 EAAFP는 어때요?” 내가 8번째 지원에서 떨어져 국제기구에 마음을 접고 있을 때쯤 정용국 차장님이 물어보셨다. “새요?”라고 되물음과 동시에 나는 막연히 비둘기만을 떠올린 채 선뜻 지원하겠다고 대답하지 못했다. 영어면접과 영어작문시험에서 빈번히 떨어졌기 때문에 또 도전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국제기구



에서 일해보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았다. 이 과정이 아니면 국제기구는 다시 도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EAAFP 프로그램 어시스턴트로 지원하였다. EAAFP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사무국으로, 올해 가입한 북한을 포함하여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18개의 정부파트너를 포함한 총 37개의 파트너로 구성돼 있는 파트너십이다. 매년 번식과 월동을 위해 이주하는 경로를 ‘철새이동경로’라고 하는데, 크게 9가지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동아시아·대양주이다. EAAFP는 이 경로 상에 있는 철새와 그들의 서식지인 갯벌, 그리고 사람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이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협약에 등재하는 것처럼 이동성 물새에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로 인증하여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Flyway Network Site)로 지정한다. 우리나라에는 천수만, 금강하구 등 총 11개의 사이트가 지정돼있으며, 전 세계에 총

138개의 서식지가 등재되어 있다. 인턴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전 세계 3,9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 1급 및 천연기념물(205-1)인 저어새가 남동 제1 유수지에서 번식한지 10년을 기념하는 ‘저어새 환영잔치’에 참석하였다. 난생 처음 망원경으로 인천 남동유수지의 인공 섬에서 저어새를 봤는데, 넓적한 부리에 머리카락 휘날리듯 목욕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전 세계 저어새 중 80%가 인천에서 번식한다고 한다. 또한,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큰뒷부리도요는 무려 8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먹어도 먹지 않은 채로 1만 2,000km를 날아온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나라의 갯벌이 철새의 쉼터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나는 그 짧은 3시간에 인턴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후 나는 세계 철새의 날 기념리셉션 및 세미나, 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EAAFP 홍보부스 운영, 북한 이동성 물새와 습지보전에 관한 브리핑 등 철새와 갯벌보전에 관한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일을 하였다. 5월 22일 세계 철새의 날(World Migratory Bird Day, WMBD)은 아프리카·유라시아 이동성물새 협정과 이동성야생동물보호협약에 의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인식증진을 위해 개최되었다. EAAFP도 이를 맞이하여 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참가자



를 모집하는 단계부터 연사초청, 그리고 마무리까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획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프로그램 기획뿐만 아니라 각종 워크숍으로부터 종별 서식지 및 분포상황, 모니터링 방안, 철새 서식지 보존 방안 등 새에 관련한 지식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EAAFP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공무원, 인천-경기 태스크포스 미팅 참석자 등 한국 내에 있는 환경전문가를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6개월의 인턴 기간 후, 인천의 주요 철새 번식지 중 하나인 남동유수지의 수질은 어떨까?라는 의구심으로 슈퍼바이저와 상의하여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3개월간의 단기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2월에 있는 <제10회 EAAFP 사무국 총회> 계획을 보조하는 프로그램 컨설턴트로 전환되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내게 이렇게 크나큰 기회를 준 국제환경전문가양성과정을 비롯하여, EAAFP 지원 자체를 포기하려 했던 제게 용기를 주신 정용국 차장님, 그리고 컨설턴트 직무까지 오도록 격려해주신 EAAFP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

01

환경정보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기관으로 지난 7월말 최종 선정되어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환경부와 소속 산하기관 등 기관별, 물·대기·자원순환 등 매체별로 산재해 있는 환경 데이터를 한 곳으로 연계·수집·저장하고, 정제·표준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공유,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환경부는 '18년부터 '22년까지 약 1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정보융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데이터 생산을 위해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총 143개로, 한국환경공단(29%), 국립환경과학원(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16%) 순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매체별로는 물환경(18%)이 가장 많으며, 자연환경(14%), 환경산업(12%) 순으로 환경데이터를 생성, 축적하고 있다.('18.5월 기준, 환경부 집계)

공단은 물, 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 전 매체에 걸친 사업 수행을 통해 약 2백억 건 이상의 환경데이터를 생산·보유하고, 이를 다른 데이터와 연계하여 환경정책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환경현안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공단은 빅데이터 플랫폼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위해 8월말 운영 전담조직인 ‘환경정보융합센터TF’ 구성을 완료했다. 환경정보융합센터는 환경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생성·운영·제공, 데이터 품질 관리, 서비스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향후 환경 데이터 포털, 데이터 시각화, 공간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결과를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공단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와의 융합을 기대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 또 다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02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기업 유치 설명회 개최

한국환경공단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기업유치 설명회·자문위원회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기관으로 올해 7월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全)주기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조성 중인 국가기반시설이다. 국비 2,335억 원을 투자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부지 14만 5,168㎡ 규모로 구축 중에 있으며, 11월 현재 공정률 86.1%로 내년 7월에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다.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물융합연구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물 산업 진흥시설과 물 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실증 시험할 수 있는 실증플랜트, 실험분석실, 종합관망시험동 등의 실증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기업유치 설명회에서는 입주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국가 물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계획과 입주기업 지원방안 설명, 입주 희망기업 제안사항 청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0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친환경축제로 약진



안동에서 열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한국환경공단과 손을 잡고 친환경 축제로 거듭났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글로벌육성축제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해 즐기는 지역대표 축제이다. 안동시는 지난 8월 30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친환경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축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시민들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부 환경정책을 알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소비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과 공단은 축제 기간 동안 환경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과 관련된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기간 중 공단은 1회용품 줄이기 및 물관리일원화 등 정부정책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국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였고, 친환경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환경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EPR제도, 물관리일원화 및 공단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폐기물별 분리배출 시연, 종이팩으로 저금통 만들기 체험 진행 등의 시민 참여 활동, 유리공예품, 공단 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 홍보 현수막 게시와 리플릿, 기념품 배포,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서명 등으로 시민들에게 한국환경공단의 역할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 등에 대해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04

인천 3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뭉쳤다

인천지역 소재 국가 출연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업무협약’을 20일 인천항만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댄 3개 공공기관은 지난 7월부터 4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한 결과, 인천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날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각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공동기금 조성, 상생모델 개발 등), 일자리 창출(공동과제 발굴, 네트워크-인프라 공유를 위한 협업 등)과 관련한 현안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인천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 마련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조율이 이뤄졌다. 3개 기관은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1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인천지역에 위치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해 사회적금융 투자, 경영 환경개선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3개 기관은 인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나의 환경 점수는 몇 점?

2018학년도 한국환경공단 2학기 기말고사

미래대비기관역량강화 편

성명

연락처

1.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적단지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구축 중에 있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 ① 워터파크 ② 후플라이드
- ③ 캐리비안베이 ④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2.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하여 지식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IT 환경을 일컫는 이것의 이름은?

- ① 클라우드 플랫폼 ② o2o 서비스
- ③ 빅데이터 플랫폼 ④ 9와 4분의 3 플랫폼

3.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온몸이 광택 있는 검은색이며 앞가슴에 반달 모양의 하얀 V자형 무늬가 있다. 이 동물을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 '반다비'가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 동물의 이름은?

- ① 북극곰 ② 반달가슴곰
- ③ 불곰 ④ 곰돌이 푸우

4. 점과 점이 연결되어 선이 만들어지고, 선과 선이 모여 곡선을 만들어내는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는 예술 활동으로, 실을 사용해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이것의 이름은?

- ① 스트링아트 ② 스트링치즈
- ③ 스트리트 아트 ④ 스프링 침대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독자 이벤트



초록 우체통의 2018학년도 한국환경공단 2학기 기말고사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2019년 2월 20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2019년 봄호에 공개됩니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웹진 역시 독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선물을 받아주세요.

이벤트 기간: 12월 11일 ~ 12월 31일
<http://keco.ecatalog.kr>

지난호 엽서 당첨자

- | | |
|----------|-------------------|
| 색연필 | 서울 노원구 광운로 |
| 키 작은이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
| 손거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 행복한 나무 | 경주시 강변로 |
| 손주임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
| 복숭아골 |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 |
| 북극곰을 지키자 |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4길 |
| 크리스탈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1로 |
| 라일구 | 충북 청주시 목행산단 4로 |
| 리본트리 |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

2018 가을호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④)

함께해요~ 환경사랑+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한국환경공단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방문해 매달 진행되는 함께해요~ 환경사랑+ 캠페인을 실천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매달 총 100분을 추첨해 친환경 선물을 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kecoprumy>
 한국환경공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ecopr>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8.5월)으로 더욱 강화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합니다.



공익신고대상 확대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



보호조치 모니터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보호규정 위반 시 벌칙 강화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